

■ 본문

빌 2:5-8

■ 시작 찬송가

314, 333, 338
(통 511, 381, 364장)

■ 헌금 찬송가

391, 419, 545
(통 446, 478, 344장)

▶ 성경에 나타난 기도시간

- 새벽예(막 1:35)
- 아침예
(시 5:3; 88:13; 143:8;
사 33:2)
- 정오예
(행 10:9; 시 55:17)
- 오후예(행 3:1)
- 저녁예
(마14:23; 시 55:17)
- 밤예(사 26:9)
- 하루 세 번(단 6:10)
- 밤이 새도록(눅 6:12)
- 밤낮
(시 88:1; 딤후 1:3)
- 쉬지 않고(살전 5:17)
- 항상(골 4:2)
- 무시로(엡 6:18)

예수님은 하인으로 사셨습니다. 하인이 주인의 밥상 아래에서 섬기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 할 때, 성도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섬긴다는 의미를 가진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에서 “코노스”는 흠먼지를 뜻합니다. 섬기는 것은 흠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흠먼지는 뒤집어 쓰는 일꾼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 25: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섬김의 모습을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기 위해 오셨고, 공생애 기간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빌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 약자들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체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며 이방인이며, 나그네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시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던 여성, 노인, 외국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으며,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 자녀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약자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시 146:8-9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느니라

신 10:17-19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2.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길

1) 물어보는 삶

좋은 신앙인은 추수하는 날의 열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피스티스: πιστις)과 충성(피스토스: πιστός)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야 하고 그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처럼,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물으며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 146:8-9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상 14:9-1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 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 기도를 통한 섬김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기도를 쉬지 않으심으로 기도를 통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눅 4:1-2),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눅 6:12-13), 12제자를 세우시기 전(눅 6:12-13),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요 11:41-42), 십자가를 앞두고 갓세마네 동산에서(눅 22:41-44)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셨지만, 항상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막 1: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눅 11:1-2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3) 일천번제에 참여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통치할 큰 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기도로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입니다.

왕상 3:3-5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함(창 18:22-33)

•야곱: 에서의 손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창 32:11-12)

•기드온: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기 위해 표적을 구함(삿 6:36-40).

•한나: 아들을 허락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삼상 1:10-11)

•사무엘: 블레셋 군대가 침공할 때 기도하여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 승리함(삼상 7:10)

•다윗: 난단을 통해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삼하 7:18-29).

•엘리야: 갈멜산에서 번제단 에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함(왕상 18:36-38)

•히스기야: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시도록 기도(왕하 20:2-3)

•다니엘: 왕 외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조서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방에서 세 번 기도하며 감사함(단 6:10)

•안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눅 2:37)

오늘의 한마디

일천번제 기도로 섬깁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WCC 제10차 총회(2013.10.30~11.8)를 통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2. 대통령 및 3부요인과 국가 안보를 위하여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4. 교회를 공격하는 종자연을 비롯한 반기독교 단체들이 와해되도록
5. C채널이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6.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7.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하여
8.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해외선교사를 위하여
9.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